드레스덴,
음악의 역사를 따라서

드레스덴을 관통하는 엘베 강변을 거닐던 괴테(1749-1832)는 아름다운 풍광에 매료된 나머지 '이곳은 유럽의 테라스'라며 혀를 내둘렀다. 같은 엘베강의 물줄기를 지녔지만 엘브 필하모니 홀이 들어선 함부르크와는 전혀 다른, 고전적이며 고즈넉한 분위기다. 지금도 드레스덴의 명물 젬퍼 오퍼에서 공연 중 긴 인터미션이 주어지면 걸음이 빠른 이들이 그 '테라스'에 잠깐 들러 도시의 야경과 공기를 한 줌 담아간다.

철학자 헤르더(1744-1803)는 드레스덴을 '독일의 피렌체'로 명명했다. 이탈리아 피렌체가 르네상스의 심장부라면, 드레스덴은 바로크 건축이 꽃핀 도시. 츠빙거 궁전과 성모교회는 그 화려한 역사를 대변해 준다.

바흐로 인해 잊고 있던 쉬츠

오늘날 독일에는 16개의 주가 있다. 그중 뒤셀도르프, 본, 슈투트가르트, 쾰른 등이 우리에게 익숙하다. 세련되고 질서정연한,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이곳들은 전형적인 서독의 도시들이다.

보다 '심오한 독일'과 그 '강인함'을 느끼기 위해선 동쪽으로 가야한다. 그곳에는 작센주(Saxony)가 있다. 독일문화의 찬란한 보고(寶庫)로 통하는 곳이다. 작센에도 주요 도시가 있다. 쾨니히슈타트(Konig-stadt)는 과거 작센왕국의 수도였다. 과거에 자유무역도시로 발전하여 시민문화를 꽃피운 라이프치히는 바흐를 기억하는 이들에겐 성지와도 같다. 드레스덴은 현재 작센 주정부의 소재지. 체코와 경계가 맞닿은 동쪽에 치우쳐 있지만,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으로 거대한 영토를 상실하기 전에는 독일의 중심지와도 같았다.

드레스덴 필하모니와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 젬퍼 오퍼 등의 전통과 유산이 있는 이곳이 서양음악사에 처음 등장할 때 함께 거론되는 작곡가는 하인리히 쉬츠(Heinrich Schütz, 1585-1672)이다. 우리에게는 꽤나 낯설다. 하지만 유럽에서 쉬츠는 바흐(1685-1750) 이전에 독일이 낳은 최고의 작곡가로 손꼽힌다. 쉬츠는 1615년부터 줄곧 드레스덴 궁정에서 활동하다 사망했다. 츠빙거 궁전을 감싼 숲과 공원을 한적히 걷다 보면 고요히 서 있는 쉬츠의 기념비가 나온다. 바로 그곳으로부터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성모교회(Frauenkirche)에 쉬츠의 무덤이 있다는 것을 아는 이들도 얼마 없다.

18세기 음악의 중심지

쉬츠의 음악적 유산은 아우구스트 2세(재위 1694-1733)를 만나 꽃피웠다. 그는 '강건왕'으로 폴란드를 통치했지만, 고국인 작센에선 '바로크의 왕'이었다. 그는 1710-1718년에 츠빙거 궁전을 지었고, '강건'한 음악후원으로 드레스덴 궁중음악을 발전시켰다. 아우구스트 3세도 그의 뜻을 이어갔다.

이들은 오페라극장을 짓고, 우수한 음악가를 불러들였고, 젊은 음악가들을 이탈리아・오스트리아・프랑스로 유학 보냈다. 크반츠(1697-1773), 하세(1699-1783), 하이니헨(1683-1729), 피젠델(1687-1755) 등이 이러한 지원들을 통해 성장하며 음악의 족적을 드레스덴에 남겼다. 비발디(1678-1741)와 텔레만(1681-1767)도 이곳을 거쳐 갔다. 아우구스트 2세는 오늘날 구·신시가지를 잇는 다리 위에 황금동상으로 서 있다.

영광의 순간만 겪은 것은 아니었다. 슐레지엔 전쟁(1740-1745)과 나폴레옹(1769-1821)의 팽창 정책 등으로 인해 침체기도 겪었다. 하지만 드레스덴은 이탈리아 기악음악을 중부와 북부 독일로 소개한 첨병기지였으며, 이를 토대로 19세기 낭만주의 기악음악의 발전을 이룩한 중심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음악사에서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유가 있다. 독일의 역사관이 정립되던 19세기에 역사 기술(記述)은 독일 민족주의적 관점이 최우선시 되었다. 따라서 이탈리아의 문화를 깊숙이 들여마셨던 드레스덴의 음악적 의미는 축소될 수밖에 없었던 것. 라이프치히와 바흐를 중심으로 독일의 음악사가 서술된 이유이기도 하다.

드레스덴 음악성지, 젬퍼 오퍼

미술 마니아는 츠빙거 궁전의 미술관으로, 음악 마니아는 젬퍼 오퍼로 향한다. 낮은 미술 순례의 시간이고, 밤은 음악의 시간이다.

젬퍼 오퍼(Semper Oper)는 츠빙거 궁전 바로 옆에 있다. 1548년에 창단하여 470년이 된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와 한국인 최초의 수석 무용수 이상은이 단원으로 있는 젬퍼 오퍼 발레가 상주하는 곳이다. 극장 설계자는 고트프리트 젬퍼(1803-1879). 일반적으로 '슈타츠오퍼(국립극장)'라 불리는 독일극장들과 달리 건축가의 이름을 내세운 점이 독특하다. [illegible] 정도로 젬퍼 특유의 양식이 녹아 있다. 초기 르네상스와 바로크의 양식이 교차하며, 기둥에는 그리스 코린트 양식까지 가미되어 있다. 1841년 개관작은 베버의 오페라 〈오이리안테〉. 그는 1817년부터 7년간 젬퍼 오퍼의 전신격인 작센 궁정오페라의 음악감독을 지낸 바 있다. 어느 극장이나 그렇듯 젬퍼 오퍼도 화마의 저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1869년 화재로 1871-1878년 재건축되며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다. 제2차 세계대전 시에도 파괴되고 다시 벽돌을 쌓아 올렸다.

독특하게도 티켓박스는 극장 외부에 설치되어 있다. 정문에서 티켓박스로 걸어가는 2분 동안 오른편에는 츠빙거 궁전의 미술관이, 정면에는 궁정교회(Hofkirche)가 눈앞에 들어온다. 웅장한 건물이 나를 둘러싼 '광활한 아늑함'. 그 모순적인 느낌도 젬퍼 오퍼 구역에서만 느낄 수 있는 또한 매력이다.

최고의 음향, 역사적 작품의 초연지

정문에는 괴테・실러・셰익스피어・소포클레스・몰리에르 등의 상이 장식되어 있고, 바로 옆 광장에는 '과학왕' 요한의 기마상이 있다. 이러한 젬퍼 오퍼 구역은 예술과 과학이 어우러진 드레스덴의 분위기를 대변한다. 극장 속 음향도 예술과 과학의 결합물이지 않던가. 세계적인 건축 음향학자 레오 베라넥이 지휘자 21명에게 음향이 빼어난 오페라극장 설문을 했을 적에 테아트로 콜론(부에노스아이레스)이 1위를, 공동 2위는 젬퍼 오퍼와 라 스칼라(밀라노)가 차지했다. 관객석에 들어서면 무대 위에 달린 시계도 독특한 시그니처다. 이 시계는 오늘날에도 작동하며 5분 단위로 시간을 알려준다.

젬퍼의 친구였던 바그너(1813-1883)는 젬퍼 오퍼의 감독을 맡으며 독일 낭만주의를 이끌었다. 바그너는 〈리엔치〉(1842), 〈방황하는 네덜란드인〉(1843), 〈탄호이저〉(1845)를 젬퍼 오퍼에서 발표했다. 1849년 드레스덴 5월 혁명 때 바그너는 젬퍼와 스크럼을 짜고 길거리를 누비기도 했다. 하지만 혁명 주도자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11년간 망명길에 올라야만 했다.

같은 시기에 슈만 부부도 이곳에 살았다. 그들이 이곳에서 남긴 역작은 피아노 협주곡(1845). 초연 시 클라라가 협연자로 나섰다. 드레스덴과 젬퍼 오퍼는 R. 슈트라우스(1864-1949)의 주요 작품이 초연된 성지이기도 하다. 〈살로메〉(1905), 〈엘렉트라〉(1909), 〈장미의 기사〉(1911), 알프스 교향곡(1915), 〈인터메초〉(1924), 〈이집트의 헬레나〉(1928), 〈아라벨라〉(1933), 〈말 없는 여인〉(1935), 〈다프네〉(1938) 등이 초연되었다.

드레스덴 필과 한쪽 어깨를 담당하는, 문화궁전

18세기와 19세기를 지나 20세기에 이르면 문화궁전(Kulturpalast, 쿨투어팔라스트)이 나온다. 드레스덴 필하모니가 상주하는 곳으로, 젬퍼 오퍼에서 느긋한 걸음으로 [illegible] 정도면 닿는 곳에 있다. 가는 길목에선 작센을 다스린 베틴 가문의 군주들이 묘사된 '군주의 행렬' 벽화도 만날 수 있다. 마이센 도자기로 유명한 드레스덴의 도자기 타일 2만 5천장을 붙여 만든 벽화다.

문화궁전은 1969년 구동독 시절에 개관했다. 로비에 들어서면 유리창 건너편으로는 성모교회가 보인다. 세계 대전시 폭격으로 그을린 벽돌로 재건한 교회다. 문화궁전은 구시가지의 고즈넉한 풍경을 해친다는 비판도 들었을 정도로 현대식 외관을 지니고 있다. 주위 경관에 비해 차가운 외형과 디자인에는 서독과 예술과 문화로 경쟁했던 동독 시절의 문화적 냉기가 남아있다. 건물의 외벽에 붙은 동독시절의 벽화는 그러한 시기를 대변하는 듯하다.

신축을 통해 2017년 4월에 재개관한 이곳은 종합공연장에서 빈야드 스타일의 콘서트홀로 탈바꿈했다. 보다 명료한 '드레스덴 필(feel)'의 음향도 얻었다. 선도적으로 이탈리아 음악을 수용하던 18세기의 드레스덴처럼, 오늘날 이곳은 7월과 8월을 제외하곤 유명 지휘자와 오케스트라가 거의 연일 방문하며 드레스덴의 기악문화를 발전시키고 있는 전진 기지와도 같다. 젬퍼 오퍼가 오페라와 발레에 주력한다면, 문화궁전은 플레인 콘서트에 주력하며 드레스덴의 음악적 기류를 양분하고 있는 셈이다. 함께 붙어있는 드레스덴 하우스 도서관에서도 문화와 예술에 대한 강연회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음악에서 살짝 벗어나도 문화예술의 매력이 보이는 곳

드레스덴은 오랜 건물들이 주는 차분하고 차가운 기운과 달리 1년 내내 뜨거운 문화예술 축제로 도시가 들썩인다. 시에 따르면 박물관이 52개, 미술관(갤러리)이 40여 개, 오페라극장이 37개, 도서관이 80개나 된다. 1978년에 설립되어 5・6월에 개최되는 드레스덴 음악페스티벌은 그중 22개 명소에서 펼쳐진다. 첼리스트 얀 포글러가 예술감독을 맡고 있다. 세계적인 재즈 축제로 손꼽히는 딕시랜드 페스티벌도 열린다. 매년 50만여 명의 재즈 팬이 다녀간다. 콘서트와 연주가 어우러지는 BRN 페스티벌과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크리스마스 시장으로 손꼽히는 슈트리첼마르크트도 열린다.

제2차 세계대전 시 폭격으로 완전히 무너졌던 드레스덴. 폐허 위에 현대식 문화로 새 역사를 쌓아간 타 도시와 달리 그들이 나아간 방향은 전통과 과거의 시간이었다. 그래서 드레스덴은 오늘날 고즈넉한 도시로 이미지화 되어있다. 하지만 오늘날 이곳은 유럽의 '실리콘 색스니(Silicon Saxony)'로 불리며 20세기 공업도시로서의 에너지와 명성을 21세기적으로 전환 중이다. 실리콘 색스니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드레스덴이 속한 작센의 영어명 색스니를 합친 말. 실제로 중앙역에서 구시가지로 들어가는 길목에 세워진 현대식 단지들이 이 도시의 현주소를 대변한다. 한마디로 드레스덴은 전통과 현대문명이 합을 맞추고, 예술과 과학이 포옹하고 있는 도시다.

글 [illegible]

SLUB
Wir führen Wissen.
Dresdner Philharmonie